"금융기관이 나서 中企 적극 도와야"

李대통령 라디오 연설, 경제위기 극복 위한 단합 역설

"외환 2천400억 달러 보유…4분기땐 흑자 돌아설 것"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라디오 연설에 나선 것은 미국발(發) 금융쇼크로 촉발된 국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 경제위기가 진정되기는 커녕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첫 라디오 연설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역설하면서 국민적 단합을 촉구한 것.

이 대통령이 직접 '소방수'를 자청하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의 경제위기가 미국 금융위기라는 대외 악재에다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 등 심리적 요인이 겹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깔려 있다.

시장이 정부와 경제 당국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 적극 나서 시장을 진정시킬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 여권 내부에서는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취임 초기 국정을 마비시켰던 '쇠고기 파동'과 유사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지나친 위기감을 갖지 말 것을 주문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외환보유고는 2천400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이 돈도 모두 즉시 쓸 수 있는 돈"이라면서 "금년 4·4분기에는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위기극복의 방법으로 가장 먼저 '신뢰'를 강조했다. 위기확산의 한 요인이 시장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야말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단언했다. 또 "서로 믿지 못하고 각자 눈앞의 이익을 쫓다 허둥대면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길게 보고, 크게 보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해선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도와줄 것을 요구했고, 정치권에 대해선 소모적 정치공방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자며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 600여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이봉화 차관

한나라 "자진 사퇴하라" 압박

한나라당이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에 휩싸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개인의 도덕적 비리로 고위 공무원이 스캔들에 휩싸이는 것은 의원들이 막아줄 필요가 없고 막아 줘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은 데 이어 당 지도부 기류가 사실상 자진사퇴 압박 쪽으로 완연히 기운 것.

공성진 최고위원은 13일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차관 문제와 관련, "고위 공직자로서 처신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명예와 도덕성은 많이 실추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여론"이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희태 대표도 이날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차관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여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다"면서 "당에서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속 빈 강정' 김치축제 이대로 방치할 건가

"광 관련 유망 中企, 출자 규모 확대 추진"

■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광주시의회는 13일 제1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시정 질문에서는 광주시의 차세대 주력산업인 광(光)산업의 활성화 대책, 경쟁력 없는 김치축제, 취지와 달리 수익에만 급급한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운영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광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은**=김후진 의원(민주·북구 2)은 "일부 광산업 업체가 가격이 싼 중국산 LED와 콘덴서 등 광산업 부품을 수입한 뒤 광주 공장에서 1차 가공을 거쳐 국산 제품으로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개 업체가 대기업 납품가를 맞추기 위해 조명과 셋톱 박스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면서 "광산업이 광주의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부품에 비해 월등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구매자·공급자간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개발 및 납품단가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치축제, 이대로 방치할텐가**=김 의원은 또 광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올해 15회째를 맞는 '김치축제'와 관련, "상술로만 채워진 시식코너, 조잡한 전시, 천편일률적인 축제 내용과 프로그램, 불결한 위생, 불쾌한 냄새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2007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의 공동 평가항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빠뜨리는 등 평가 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자체 평가나 다음 행사를 위한 피드백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부실 운영을 비판했다.

◇**상업성에만 치중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진선기(민주·북구 1)의원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 컨벤션센터를 목표로 개관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취지와 달리 상업성을 바탕으로 한 대관 기관으로 변모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일부 행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행사가 콘서트·체험전 등 대부분 상업성을 띠고 있으며 국제회의 유치 실적도 국제협회연합(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기준에 적합한 행사의 경우 단 2건을 유치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제협회연합은 국제기구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회의로 참가자 수 50명 이상, 국내단체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전체 참가자 수 300명 이상, 참가자 중 외국인이 40% 이상, 참가국수가 5개국 이상, 회의기간이 3일 이상인 국제회의를 통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관련, "광 관련 유망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출자 규모 확대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김치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컨벤션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규모도 큰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정세균 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경제상황을 '미증유의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 편성 등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내년 예산안 힘겨루기 예고

민주 "수정 편성" 요구에 한나라 "정략적 의도 있다"

여야가 국회로 넘어온 27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한바탕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상 내년 예산안 처리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려면 한달 가량 남아있지만 민주당이 13일 정부에 내년 예산안의 수정편성을 요구하면서 벌써부터 예산안이 정국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하는 만큼 경제운용 기본방향과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새로 짜올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높게 잡은데다 13조원대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세입이 올해보다 15.6%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부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세입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세출에 있어서도 복지예산을 사실상 축소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재정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많은데다 최근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까지 고려할 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리하면 될 일인데도 민주당이 벌써부터 수정편성을 요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나아갈 때를 알자

장필수

사회2부 차장

요즘 광주·전남 곳곳에서 가을축제가 한창이다. 화려한 가을축제에 가려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잔치도 도처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전후에 열리기 시작한 노인잔치는 통상 10월 한달동안 계속되고 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하는 잔치로 지역 청년회와 자치위원회 등 주민단체가 개최하지만 자치단체가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지역 대다수 시군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노인의 날 행사는 어찌보면 가장 두터운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장이라고 할 만한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담양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수와 군수 입지자들의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7일 담양읍에서 열린 노인의 날 행사장에서는 라이벌 관계인 전·현직 군수가 만나 얼굴을 붉혔다.

특히 벌써부터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일부 군수 입지자들의 행보는 민심 분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대덕면 만덕초등학교 열린 대덕면민 노인의 날 행사장에는 5명의 입지자들이 출동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현재 군수 보궐선거를 생각하고 뛰고있는 사람은 자천타천으로 1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인 이정섭 군수가 낙마할 것으로 예상해 때 이른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다. 내년 3월까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4월 보궐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과열양상을 보이자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전 입지자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사전 선거운동 대상에 대한 안내와 함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나타난 폐해 가운데 하나가 갈라진 지역 민심이다. 입후보자들을 기준으로 줄을 서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인구가 적은 군단위 지자체일수록 폐해가 심각하다. 담양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선 4기들어 더욱 심해진 전·현직 군수간 갈등으로 민심은 갈리고 군정은 좌표없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벌써부터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입지자들의 행동은 우려할 만 하다. 맹자는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나아가지 않는다(유수지위물야 불영과불행·流水之爲物也 不盈科不行)"고 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과정이 있다. 무릇 군자란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새겨야 할 때다.

/bungy@kwangju.co.kr